



사실을 사실 대로 보자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이다. 우리는 그 진실 위에 입각해서 모든 사리를.....

金亨錫

연세대 명예교수·철학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삼각형의 내각이 250도가 되면 귀족이 평민으로 바뀌지도 않으며, 부자가 가난해지지도 않고, 권력층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삼각형의 내각을 250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또 그 주장이 통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17세기의 어떤 영국 철학자가 그 당시의 영국 현실을 보면서 남겨놓은 가슴저린 글이었다. 모든 사고에는 뚜렷한 법칙이 있게 마련인 때문이다.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며 또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사고의 법칙과 원리는 어떤 것인가.

우선 우리는 모든 사실대로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조작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며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 허위가 알려지게 되면 모든 진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허위는 진실이 밝혀질때 견디어 낼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다는 뜻이다.우리는 그 진실 위에 입각해서 모든 사리를 가리며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이다.

누가 조작할 수도 없고 바꾸어 좋을 수도 없다.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진실 위에서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정당하며 타당하며 갖는다. 만일 진실을 외면한 채 사리의 정당성을 찾으며 가치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것 같이 위험하다. 집이 크면 클수록 그 무너짐은 더욱 심각해진다.

과거의 독일과 일본이 같은 역사의 비극을 치렀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진실이 알려진다면 그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치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언제나 두 가지 전제가 따른다.

그 하나는 전체적 방향을 택함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에의 의미를 모색함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결과가 되기를 바라기 쉽다. 또 때로는 우리들, 즉 어떤 집안을 위하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데 그치곤한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때로는 불행의 원인이 된다.

언제나 우리 모두,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나에게는 약간 고통이 오더라도 사회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우리들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불편이 오더라도 국가를 위한 길인 때는 양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사회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가 풀려야 장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불행한 생각에 빠진다. 우리들 동양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그 뜻이 더욱 강하다. 그래서 역사를 살피면 원수를 갚기위해 서로 해치며 은혜를 갚기 위해 끼리끼리 사는 폐습이 국가생활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 이 갚는다는 생각이 무엇

인가. 과거가 해결되어야 미래로 갈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져보면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과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과거의 의미는 미래가 해결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 보복을 해야 된다는 파국적인 정신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불행스러운 의식구조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서 불

식되고 언제나 전체와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는 생활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염원이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민족 전체를 위해 무엇이 초망스러우며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다는가를 묻고 그대로 따른다면 다른 모든 점은 자연히 해소될 수가 있다.

생각이 앞서야 행위가 뒤따르며 바른 뜻에서 건설적인 노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고는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CROWN DENTAL LABORATORY

크라운齒科技工所

☎ 762-9911 · 762-8917

代表 任 尚 彬

서울特別市 鍾路区 孝悌洞 209-3
(南江빌딩 302号)